

교수일반분과/어문학/02/

기독교 교육의 번역 역할에 대한 지향점 고찰 —어린이와 어른 성경 버전 문체 비교를 중심으로—

김동미(강동대 교수)

1.서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 교육은 대학교나 공교육 기관에서 행해지는 학문이나 학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교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교회와 학교의 교육 지향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지향점을 살펴보면, 학교 교육은 정신적, 심리적, 물리적으로 훈련하여 유용한 사회의 일원이 되게끔 교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는 다르게, 기독교 교육은 학교 교육과는 다소 다르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 훈육하고 교육하여 올바른 신앙적인 인성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그 목적성이 다르기에 교육에 있어서 접근 방법이나 형태를 동일시한다면 앞서 언급한 두 교육방법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논자는 교회에의 기독교 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 및 설교의 자료로써 사용되는 성경 번역본을 본 논문의 텍스트 기준으로 삼고자 하며, 세부적인 비교·분석 자료로 어린이와 어른 성경 버전을 중심으로 잣대를 대고자 한다.

특히, 비교·분석 자료로 삼은 성경 번역의 발췌본은 신약의 빌립보서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교훈적인 내용과 가르침을 전달하기에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내용 전체가 짧은 장(章)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 내용을 비교하고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교육의 번역 역할에 대한 지향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반 번역 교육의 번역 역할에 대한 지향점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번역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소주제로 삼고 있는 어른과 어린이 성경 버전을 비교하여 그 현상을 분석하여 앞으로의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번역 역할에 대한 나침반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일반 번역교육과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번역 역할 비교 연구

2.1 일반 번역 교육에 있어서 번역의 역할

일반 번역 교육에 있어서 번역의 역할에 대한 지향점은 한마디로 번역 전문성(translation competence) 함양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면에서 통역·번역과 관련하여서는 전문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흥미로운 점은 교육과 관련하여 교수자의 학습자와 수업에 대한 애정, 관심, 책임감 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유나, 2008).

이 밖에도 일반 교육 과정에 있어서 통역과 번역에 대하여 여러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김순영(2006)은 국내 학부 번역 교육과정에 대하여 국내 3개 대학교의 교과 과정을 고찰해 나가면서 보완해야 하는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3가지를 지적하였

는데 첫째, 통일된 교과과정의 부재로 대학별 운영 방식에 편차가 크다는 것이고, 둘째는 언어 능력 숙달 교과과정 프로그램에서 외국어 영역의 과목만을 개설하고 한국어 영역에 대해서는 전무 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셋째는 교육목표에 있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김순영의 이러한 주장은 보다 전문적인 통역·번역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박윤철(2010), 전성기(2015)는 영어교육에 있어서 4가지 기능 즉, 쓰기(writing), 읽기(reading), 말하기(speaking), 듣기(listening)에 추가로 한가지 기능을 추가하려 '번역'(translation)기능을 추가하여 일반 교양 영어 과정에서도 번역이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번역의 중요성으로부터 한발 더 나아가 일반 의사소통언어의 기능으로서 외국어를 습득하기에도 바로 '번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최근에 한가지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출현하면서 교육에도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언급한 연구가들을 살펴보면 전현주(2017), 조준형(2019)을 언급할 수 있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있어서 교육의 방법과 질에 있어서 큰 변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강조하면서 번역에 있어서 기계와 인간이 어떠한 역할 분담을 하며, 이에 교육기관에서 앞으로 AI(Artificial Intelligence) 시대에 인간의 번역 역할에 대하여 전문성 함양에 보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상에 대하여 번역 교육의 니즈(needs)를 분석한 연구로 김유나(2008)가 있으며, 교수자의 통·번역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교수자의 전문성을 강조한 이미경(2018)을 언급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연구자들의 공통점은 학부에서의 의사소통 영어를 중시하는 교양과정 혹은 학부 전공과정에 있어서 통·번역 내지는 대학원(석사) 과정에 있어서 전문 교육과정 모두 번역 능력(translation competence)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수업)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 능력(competence)이라는 어휘는 'ability'와 다소 상이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competence' 개념의 능력은 각종 시험 혹은 테스트를 거쳐 훈련을 통하여 습득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할 수 있다.

다음은 기독교에서 다루고 있고 다루었을 수 있으며 앞으로도 다루어질 수도 있는 번역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 다루게 될 기독교에서의 번역 역할은 여러 각도에서 번역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겠으나 어른과 어린이의 버전 비교를 중심으로 논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문체 현상의 분석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번역의 역할

성경을 최초로 한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이수정이다. 그러나 이수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첫째, 국한문 혼용체를 일괄적으로 과도기적 문체로 간주한 나머지 국문사용을 공식화한 갑오경장 이후의 자료들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며, 둘째, 기독교 역사 연구 분야에서 한글교육과 보급에 있어서 기독교의 공헌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국한문체로 번역된 이수정 번역 성경에 관한 연구가 등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김성은, 2015).

이 성경 번역을 시초로 현재의 개정개역판 성경책을 출판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의 시행착오를 걸쳤으며, 지금도 수시로 끊임없는 독자들과 번역가들의 피드백을 통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장 적절한 성경 번역'이라는 출판물 독자들은 목말라 하며 기대하고 있다.

박철우(2018)는 「표준새번역」에 대한 성경 번역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논하면서 하나의 '성경 번역'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노력과 노고와 은혜로 이루어졌는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처럼 성경 번역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너무나 많은 불특정 다수의 독자를 상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기에는 불가능하며 끊임없는 작업이 일고 있다.

기독교에 있어서 번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일 것이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영어권에 속하며, 언어가 다른 조선 땅에 선교를 시작해야 했을 당시에는 여러 방면에서의 선교가 필요하였겠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사항이 바로 의사소통의 시작이자 선교사(宣敎事)의 시초가 되는 통역과 번역이 가장 큰 난제이었을 것이고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었을 것이다.

오늘날 성경 번역에 관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고 논의되는 사항으로, 문체의 차이를 언급하며

이어서 언어 혹은 비유의 번역에 대하여 언급한 논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언급의 공통된 특성의 출처는 바로 ‘문화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영·한 성경 번역의 문체 차이에 있어서 토대가 되는 ‘문화’는 다양한 결과물을 양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어권에서는 반말, 존댓말, 극존칭이 한국어의 상황만큼 뚜렷하지 않은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을 번역할 때, 번역가의 선택은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하며 ‘문화 차이’라는 개념을 번역시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

기독교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자료는 ‘성경’(bible)이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우선순위로 중요한 것은 ‘성경 번역’(bible translation)일 것이다. 그 이유는, 외국의 종교를 알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 선교하고자 하는 나라의 언어파악인데, 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외국어교육으로 한 번에 여러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는 ‘번역’이 가장 이상적(ideal)이기 때문이다.

우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번역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로 살펴볼 만한 연구들로 언어 혹은 비유에 대한 번역과 문체에 대한 번역연구의 두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부류 중의 하나로 대표적인 예로는 언어 혹은 비유에 대한 번역 연구로 박노철(2005)을 찾아 볼 수 있다. 박노철은 한글 킹제임스(KJV) 성경 번역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그에 대한 기준선으로 언어, 문법, 그리고 문화적인 면에서의 충돌을 분석하였다. 또한, 유선영(2017)은 속담이나 관용어구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클리셰(cliche)을 실제 성경 텍스트를 통하여 실증 분석하여 영·한 통·번역(성경)의 차원을 다채롭게 입증하였다. 이 같은 연구들이 가능한 것은 무엇보다 성경이 기술적인 사실들만을 기록하고 있다기보다는 비유와 은유 그리고 기적을 다루고 있기에 비교 분석의 토대가 가능하다고 언급할 수 있겠다.

다른 하나의 연구 부류로 둘째로는 성경문체를 언급할 수 있겠다. 이수정은 한국어로의 최초 성경번역가라고 언급되었는데, 이수정의 문체에 대한 언급으로 김성은(2015)과 이에 대한 논찬으로 이재근(2015)을 살펴볼 수 있다.

김성은은 이수정이 처음으로 성경 번역을 한국어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명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역사적, 시대적으로 증명하였으며, 처음 성경 번역의 문체가 국한문 혼용체였는데, 갑오경장 이후로 국문 장려책으로 인하여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성경 번역에서 문체를 언급할 시에 다루어야 할 대상으로 강조하였다. 따라서, 최초의 성경 번역은 국문용이 아닌 국한문 혼용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한편, 성경 번역문체에 관하여 흥미로운 연구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박철우(2018)는 2인칭에 해당하는 ‘You’를 번역할 때, 표준새번역의 ‘당신’이라는 표현이 역설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옛날 버전의 ‘너희’라는 표현보다 자연성과, 성스러움, 친밀감이 덜 느껴진다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증명하였다.

또한, 김동미(2018)는 영·한 번역의 수용성 연구로써, 어린이와 어른 성경 번역문체를 비교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교회의 참석 여부나 본인의 신앙심의 상태 여부에 상관없이 개정판의 번역문체보다 개정판의 전(前) 버전에 해당하는 ‘고어체’적 번역에 대하여 신앙심이 더 느껴진다고 논증하였다.

다음은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일부를 발췌한 번역문체를 분석하여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연구들이 진실로 개정판의 어린이와 어른 버전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관찰하여 보고 검증을 하여 이상적인 성경 번역문체를 제시하여 적절한 기독교 교육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3. 성경 속(빌립보서)에 나타나는 번역문체 분석

3.1 분석텍스트의 선정

성경의 형식적인 분류를 한다면, 신약(39권)과 구약(27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구체적인 단계로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 17권으로 구성되며, 신약으로는 역사서 1권, 서신서 21권, 예언서 1권, 4 복음서 4권으로 구성되었다. 이 가운데, 본 논고에서 분석텍스트로 삼고자 하는 텍스트로는 신약의 빌립보서에 해당한다. 빌립보서의 저자는 바울(Paul)이다. 약 주후(A.D) 63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빌립보서에

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개인적인 편지로서,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글의 형식이다.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물질적으로 기꺼이 도와준 일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하는 부분이다. 또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를 제시하고 있다.

논자가 구약과 신약 전체 부분 가운데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바울이 일반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에게 전할 가르침의 부분이 포함되어 기독교 교육과 관련하여 깊이 의미가 있으며, 66권 가운데 1권을 선택하여 전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논증을 이끌어 가기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부여하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빌립보서는 모두 4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장 모두 본 논고에서 분석텍스트의 대상으로 사용될 것이다.

성경 번역 분석 시, 여러 각도에서의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본 논고에서는 ‘문체’(style) 측면에서 시도하고자 하며, 동일 출판사의 어린이 버전과 어른 버전을 비교·분석하여서 논증하고자 한다.

3.2 어린이와 어른 버전 성경 문체(성서원)의 끝말 어미 분석

성경의 문체 번역에 대해 연구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른 성경 버전에서 나타나는 문체를 기준으로 역사적으로 추론하여 논한 논문들이 주를 이룬다. 또한, 성경의 내용이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하여 집필되었는데 이것들을 번역할 때 어떠한 오역과 잘못이 있는가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김동미(2018)는 성경의 문체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문체에 대하여 논증하면서 성경 번역의 수용성에 있어서 지향적인 성경문체를 제시하였다.

다음은 성서원 출판사에서 출판한 어린이용 『쉬운말성경』과 어른을 위한 『큰 글자 성경전서』를 기준으로 문체를 비교할 것이다. 여러 출판사의 번역결과물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출판사에서 어린이와 어른 버전을 동시에 출간한 경우가 어른과 어린이를 위한 목적성의 기준선을 제시하는데 뚜렷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서, 출판사인 성서원이 성경 번역에 많은 버전들이 나왔으나, 일반 서점에서 많이 판매되는 성경 번역의 출판사이기도 하며, 일반 교회에서 많이 애용되는 성경 번역의 버전이기 때문에 본 논문 비교 분석의 대상 출판사로서 최근에 출간된 번역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3.2.1 끝말 어미 ‘--하노니,--나라, --나니’의 문체 차이 분석

본 논고의 분석텍스트인 빌립보서 내용 전체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첫째 문체 차이 분석으로 삼은 분석 기준은 성경 번역 가운데 끝말 어미로 고어체(古語體)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노니, --나라,--나니, --오니’로서 ‘--니’의 문체이다. 성경(빌립보서) 전체 가운데 절(節) 속에 가장 많이 사용된 문체로 어른 성경 버전에서 다수 발견되나 어린이 성경 번역 버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른 성경 번역에서 나타난 앞서 언급한 문체들의 횟수나 표현들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표1> 어른과 어린이 성경 버전 문체(--하노니, --나라, --나니, --오니) 비교

빈도수	장	절	어른 성경 버전 예문	어린이 성경 버전 예문
1	1	1	그리스도 예수의..... 편지하노리	그리스 예수의....편지를 씁니다.
2	1	8	내가.....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내 증인이십니다.
3	1	13	이러므로....나타났으니	그리스도의....되었습니다.
4	1	14	형제 중....되었느니라	이처럼....되었습니다.
5	1	15	어떤전파하나니	살펴보면....합니다.
6	1	17	그들은...전파하느니라	그러나...전합니다.
7	1	25	내가...아노니	이것을...것입니다.
8	1	30	너희에게도...바니라	지금...있습니다.
9	2	5	너희...마음이니	무엇보다...주십시오

10	2	10	하늘에...하셨느니라	그리하여...무릎 꿇고
11	2	13	너희...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분이십니다
12	2	17	만일...기뻐하리니	형제들이여... 것입니다.
13	2	22	디모데의...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도...도와주었습니다
14	3	1	끝으로...안전하니라	나의...당부합니다.
15	3	11	어떻게 해서든지...하노니	어떻게든지...것입니다.
16	3	18	내가...행하느니라	내가...있습니다.
17	3	20	그러나...기다리노니	그러나...있습니다.
18	4	5	너희 ...가까우시니라	여러분은...계십니다.
19	4	11	내가...배웠노니	지금 내가...터득했습니다.
20	4	13	나에게...있느니라	나에게...일입니다.
21	4	15	빌립보...없었느니라	빌립보...없었습니다.
22	4	19	나의 ...채우시니라	나의...것입니다.
23	4	22	모든...몇이니라	모든...전합니다.

앞선 <표1>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상의 비교와 같이 빌립보서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하노니, --니라, --나니, --으니’가 어린 성경 버전에서 상당 부분 많이 출현한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 성경 번역문체에서는 ‘--(입)니다’ 문체가 빌립보서 2장 5절만 제외하고 모두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동일한 성경 번역 출판사에서 어른과 어린이의 문체를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어린이는 ‘--니다’의 ‘현대어(現代語)’로 번역한 것과는 다르게 어른 버전에서 ‘고어체’(古語體)로 번역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 연구로 김동미(2018)를 말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를 향해 설문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과 관계없이 그리고 본인의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없이 어른과 어린이 모두 성경에서 ‘고어체’에서 신앙심이 더 느껴지고 성경의 의미 전달이 잘 된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성서원에서 번역된 어린이 버전은 독자를 위해 어린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접하고 있는 교과서 많이 볼 수 있는 ‘--입니다’ 문체 위주로 번역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입니다’ 문체와 성경적 고어체의 다른 형태가 어른과 어린이 버전에서 어떠한 번역문체 등을 나타내는지 관찰하도록 하겠다.

3.2.2 끝말 어미 ‘--함이라, --함이니, --함이니라’의 문체 차이 분석

끝말 어미가 ‘--함이라, --함이니, --함이니라’의 끝말 어미 문체도 다른 장르의 고어체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며 성경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끝말 어미이다. ‘--함’이라는 표현을 동일 출판사의 어린이와 어른 버전에서 번역한 것을 발견하면 다음의 <표2>에서 나열된 것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2> 어른과 어린이 성경 버전 문체(‘--함이라, --함이니, --함이니라, --함이라’) 비교

빈도수	장	절	어른 성경 버전 예문	어린이 성경 버전 예문
1	1	21	이는...유익함이라	그런 까닭은...입니다.
2	1	26	내가...함이라	그리하여...입니다.
3	2	16	생명의...함이니라	또 생명의...것입니다.
4	2	19	내가...함이니	주께서...것입니다.
5	2	28	그러므로...함이니라	그런 이류로, 것입니다
6	2	30	그가...함이니라	진실로... 때문입니다.
7	4	17	내가...구함이라	나는...것입니다.

앞선 <표2>에서의 예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표 1>과 같이 ‘--함이라, --함이니, --함이니라, --함이라’의 성경적 고어체가 어른 버전의 성경문체로 번역된 것으로 총 7군데 발견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비교해 어린이 버전에서는 끝말 어미가 모두 ‘--(입)니다’로 중

결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비교적 어른이 <표 1>과 같은 고어체와 <표2>와 같이 다양한 고어체로 번역한 것과는 다르게 어린이 성경 번역문체로서 공통적이며 규칙적으로 끝말 어미를 '--(입)니다'로 마친 것을 지금까지 관찰할 수 있었다. 이것은 많은 수의 번역가들의 협의 아래에 가장 좋은 번역문체를 선택하여 성경책을 번역하였을 것이라 간주하지만 어른 성경 버전에서는 다양한 고어체를 사용한 것과는 다르게 어린이 버전에서는 끝말 어미에 규칙성이 있고 어린이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교과서에서 발견한 문체를 감안하여 가독성과 수용성 및 친밀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번역문체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과연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문체들 외에도 어른과 어린이 성경 번역문체가 어떠한 것들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겠다.

3.2.3 끝말 어미 '--라'의 문체 차이 분석

여기서 언급하는 '--라'는 명령어의 '--라'가 아닌 설명적 기술문에서 사용된 고어체의 '--라'를 의미한다. 어른 성경 버전과 어린이 버전을 비교한 현상의 기술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3> 어른과 어린이 성경 버전 문체('--노라, --리라, --하라, --지라, --자라,--이라') 비교

빈도수	장	절	어른 성경 버전 예문	어린이 성경 버전 예문
1	1	6	너희...확신하노라	여러분...확신합니다.
2	1	7	내가...됨이라	내가...나누었습니다.
3	1	18	그러면...기뻐하리라	하지만...것입니다.
4	1	21	이는....유익함이라	그런 까닭은... 때문입니다.
5	1	24	내가...유익하리라	그러나...것입니다.
6	1	26	내가...함이라	그리하여...됩니다.
7	1	28	무슨...것이라	여러분을...것입니다.
8	1	29	그리스도를...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있습니다.
9	2	4	각각...하라	또한...주십시오
10	2	8	사람의...죽으심이라	이처럼...것입니다.
11	2	16	생명의...함이라	또 생명의...것입니다.
12	2	18	이와 같이 ...기뻐하라	그러니...기뻐하십시오
13	2	20	이는...없음이라	지금...없습니다.
14	2	25	그러나...자라	그러나...사신입니다.
15	2	26	그가...근심한지라	지금...지냅니다.
16	3	12	내가...달려가노라	하지만...뿐입니다.
17	3	14	꽃대를...달려가노라	그리스도...뿐입니다.
18	3	16	오직...것이라	어쨌든,...합시다
19	3	17	형제들아...보라	형제들이여, ... 눈여겨보십시오
20	3	19	그들의...자라	하지만...일뿐입니다.
21	3	21	그는...하시리라	그때에...것입니다.
22	4	1	그러므로...서라	내 사랑하고 ...서십시오
23	4	2	내가...품으라	나는 ... 하십시오
24	4	4	주 안에서...기뻐하라	주 안에서...기뻐하십시오
25	4	6	아무 것도...아뢰라	어떤 일이든...하십시오
26	4	7	그리하면...지키시리라	그렇게 하면...것입니다.
27	4	8	너희는...계시리라	마지막으로...하십시오
28	4	9	너희는...계시리라	그리고

				여러분은...것입니다
29	4	12	나는...배웠노라	그래서...잘 압니다.
30	4	17	내게...있으리라	나는 선물을 ...것입니다.
31	4	18	내게는...것이라	나는 지금...제물입니다.

앞서 언급한 ‘--라’ 문체 분석에서 한 가지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명령문의 경우는 ‘--라’의 번역물이 ‘--하십시오’로 했으며, ‘--라’가 서술적 기술문인 경우, 모두 ‘(입)니다’로 번역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른 성경 버전에서는 여러 가지로 번역된 ‘-노라, --리라, --하라, --지라, --자라,--이라’ 표현들이 하나같이 어린이 버전에서는 ‘(입)니다’로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어른 버전에서 느낄 수 있는 맛깔스러운 다양성과 각 어투에서 느껴지는 수직적인 신성성(神性性)의 깊이에 대한 높낮음이 어린이 버전에서는 입체적으로 느낄 수 없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이 성경의 번역문체에 대해서 연구한 박철우(2018)는 『새번역성경』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라는 어휘에 대하여 예전에 번역하고 사용하였던 ‘너희’라는 어휘에 대하여 설문한 결과, 예전 버전이 더 설문조사자들에게 더 좋게 느껴진다는 답변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번역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다른 장르와는 구별되는 특별한 부류로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즉, 번역가가 독자를 위해 너무 의식한 나머지 초과 번역(over translation)을 하게 되면, 독자가 읽고 판단하고 느껴야 할 번역의 맛을 번역가가 다 빼앗음으로써 번역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영·한 성경 번역의 경우, 영어권의 문화와 한국어의 문화가 다르기에, 번역가는 어쩔 수 없는 중재자 역할을 적절히 잘 수행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어권에 존재하나 영어권에는 좀처럼 없는 수직관계의 문화를 잘 중재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으며, 호칭이나 격식에 있어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권이기에 때문에 이것을 현대어로 번역한다고 해서 수평적 영어 문화권의 해당하는 언어로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앞서 언급된 예문들의 경우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번역문체가 유사하게 동일 주제로 언급되는 사례들을 관찰한다면, 번역가가 독자들을 필요 이상으로 의식해서 상업성을 피하지 못한 것 같아 성경 번역의 묘미가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언급할 수 있다.

3.2.4 끝말 어미 ‘--(지) 어다, --도다’의 문체 차이 분석

다음은 어른 성경 버전의 경우 ‘--어다, --도다’로 번역되었으나, 어린이 버전에는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관찰하도록 하겠다.

<표4> 어른과 어린이 성경 버전 문체(‘--(지) 어다,--도다’) 비교

빈도수	장	절	어른 성경 버전 예문	어린이 성경 버전 예문
1	4	16	데살로니가에..보내었도다	내가 ... 주었습니다.
2	4	20	하나님 ... 돌릴지어다	하나님 ... 빙니다.
3	4	23	주 예수...있을지어다	주 예수... 빙니다.

흔히, 성경에서 독특하게 사용되는 ‘--지어다, --도다’ 표현을 손꼽을 수 있는데, 동일한 원문을 가지고 목표텍스트 중의 하나인 어른 성경 버전에서는 끝말 어미로 ‘--보내었도다’, ‘돌릴지어다’, ‘있을지어다’ 인데 이에 대하여 어린이 버전에서는 하나같이 끝말 어미가 ‘--주었습니다’, ‘--빙니다’, ‘빙니다’, ‘--(입)니다’로 번역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 어린이 버전의 공통된 문체 패턴이라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는데, 비교적 성경 속에서 많이 나타난 특성 내지는 양상을 지니는 문체보다는 학교의 교과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문체 패턴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다음은 마지막 유형의 끝말 어미 ‘--고로’의 문체 비교를 하도록 하겠다.

3.2.5 끝말 어미 ‘--고로’의 문체 차이 분석

‘--고로’ 문체 역시 다른 장르의 고어체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어투이자 문체라 간주할 수 있는데 이러한 번역 양상이 어린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표 5>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표5> 어른과 어린이 성경 버전 문체(‘--고로’) 비교

빈도수	장	절	어른 성경 버전 예문	어린이 성경 버전 예문
1	1	19	이것이...아는 고로	여러분이...압니다

위의 <표5>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고로’ 문체가 4장에 걸쳐서 모두 한 개가 번역되었으며, 어린이 버전에서는 이와 같은 문체나 어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양 버전의 번역을 통하여서 비교할 수 있었다. 이같이 동일한 출판사의 번역결과물이지만 원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성경의 의미가 비교적 크고 다르게 번역되는 두 번역결과물을 살펴보면, 번역가가 원문의 성경적인 의미 전달에 유사하게 전달하는데 등가적 차이(difference)가 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겠다. 어린이를 위한 쉬운말 성경이 현대와 같이 급변하고 다양화되고 다문화화가 된 세상에서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번역사가 개입을 심하게 한 나머지 성경의 의미 전달이 어른이 느끼는 정도와 비교했을 때, 편차가 많이 난다면 번역가의 역할을 비롯하여 교육의 의미가 함축되어 전달되어야 하는 성경 번역의 역할도 함께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4. 분석결과

성경 속에 나타나는 번역문체 분석에 있어서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어린이와 어른 버전의 문체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성경 66권 가운데 빌립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저자인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의도가 비교적 빌립보서를 제외한 다른 권보다 더 질게 나타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분석텍스트로 선정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분을 발췌한다면 객관성과 타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해당하는 권 전체를 다루어 분석하고자 하여 빌립보서를 선택하였다.

어린이와 어른 버전 성경 문체 분석의 기준선은 ‘끝말 어미’로 삼았으며, 출판사, 성서원의 번역본으로 분석의 근거로 하였다. 먼저, 모두 5가지 부류로 나누어 어린이와 어른 버전의 문체를 비교하였는데 그에 해당하는 문체의 비교 기준은 첫째, ‘--하노니, --나라, --나니’가 있고, 둘째로는 ‘--함이라, --함이니, --함이니라’가 이에 해당한다. 셋째의 기준 분석 문체 비교 대상 어로는 끝말 어미 ‘--라’이며, 넷째, ‘--(지)어다, --도다’가 있고, 마지막으로 다섯째, 끝말 어미 ‘--고로’의 문체가 비교·분석의 기준선에 해당한다.

첫째, 끝말 어미 ‘--하노니, --나라, --나니’의 문체를 어른과 어린이 버전으로 비교한 결과, 본문 빌립보서 안에서 총 23군데 조사되었는데 어른 성경 버전에서는 ‘--하노니, --나라, --나니’ 문체가 골고루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이 성경 버전에서는 ‘--(입)니다’가 22군데 발견되었고 나머지 1개는 ‘--(십시오)’라는 문체로 번역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어른 성경 버전의 번역에서는 다양하며 고어체를 사용하여 번역한 ‘--니’문체가 어린이 성경번역 버전에서는 1군데만 빼고 모두 만장일치로 ‘--(입)니다’로 동일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끝말 어미 ‘--함이라, --함이니, --함이니라’의 문체 비교를 살펴보면, 어른 성경 버전에서는 ‘--함이라, --함이니, --함이니라’가 전체적으로 7군데 번역된 것을 알 수 있고, 어린이 성경 버전에서는 7군데 모두 ‘--(입)니다’로 번역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분석 또한 분석 첫째와 같이 어른과 어린이 버전의 비교가 눈에 띄게 다르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끝말 어미 ‘--라, --노라, --리라, --하라, --지라, --자라, --이라’의 문체 비교를 살펴해보았다. 그 결과, 어른 버전에서는 모두 31군데 빌립보서 내용 전체 가운데 번역되었다. 반면, 어린이 버전에서는 6군데가 ‘--(십시오)’로 번역되었으며, 나머지 25군데는 첫째, 둘째 분석과 동일하게 ‘--(입)니다’문체로 번역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다음의 넷째에 해당하는 문체

비교·분석으로는 ‘--(지) 어다, --도다’로서 어른 버전에서 총 3군데 나타났다. 그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보면, ‘--보내엿도다’, ‘돌릴지어다’, ‘있을지어다’가 있다. 이에 대응하여 어린이 버전에서는 ‘주었습니다’, ‘빚니다’, ‘빚니다’로 번역된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분석 또한 앞서 분석하고 비교한 번역문체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고로’의 문체 비교를 살펴보겠다. ‘--고로’ 문체가 성경, 빌립보서 가운데 1군데 발견되었고, 어른 버전에서는 끝말 어미 ‘아는 고로’로 번역되었다. 반면, 어린이 버전에서는 ‘(입)니다’로 번역되어 ‘--(입)니다’의 번역문체 패턴으로서 앞선 문체 성향과 동일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여러 사람에 의해 집필된 성경 번역에 대하여 여러 연구가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특히, 문체에 관하여 몇몇 연구가들이 번역문체에 분석을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대안을 내놓았다. 이들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연구가들로는 박철우(2018)와 김동미(2018)를 말할 수 있겠다. 박철우(2018)는 2인칭에 해당하는 ‘You’의 번역문체에 대하여 ‘고어체’인 ‘너희’와 이를 수정하여 ‘당신’이라고 재번역한 버전을 설문하여서 어느 어휘가 신성성을 더 느끼게 해주고 친근감과 신앙심을 불어주느냐를 살펴보았는데, 재번역이 아닌 고어체에서 더 많이 신앙심을 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김동미(2018)의 설문조사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모두 4부류로 나누어서 비교하였다. 즉,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팀과,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심이 없다고 간주하는 자,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신앙심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신앙심도 없다고 판단하는 부류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4부류 모두 구분과 상관없이 고어체적 성경 내용을 선호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신성성과 친밀감을 더 느끼게 해준다는 조사를 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는 그러한 설문조사와 실제 성경의 번역문체를 비교하고 논증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현재 출판된 성경 번역문체의 재고 가능성 열어둘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본 논고에서의 성경(빌립보서)의 분석을 살펴보면, 다양하고 고어체적인 어른 성경 버전과 대조적으로 ‘--(입)니다’의 번역문체로 번역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앞선 설문조사들의 연구내용과 어린이 버전의 문체가 비효율적으로 쓰여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성경 번역이 일반 대중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경책이 집필되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심이 없는 사람도 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독자를 배려할 때에 고어체적이고 성경 문구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어휘 및 끝말 어미를 어린이 버전에서는 지양(止揚)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경 번역문체에 대하여 연구한 김동미(2018)는 독자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특수 용어나 고어체 등이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신앙심이 없는 일반인에게조차도 더 신성성을 가미하게 되어서 더 이끌린다는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결과 내놓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와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어른 성경 버전에서는 이상이 없으나 어린이 버전 성경 번역문체는 비교적 ‘--(입)니다’의 문체가 전반적으로 남용되다시피 하여서 성경을 읽는 독자가 곱씹으며 이해하고 감상하면서 소화해야 할 성경의 의미적 이해를 번역가가 다 해버려서 성경 이해의 본질적인 의미 이해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논자는 성서원의 어린이용 버전에서 끝말 어미를 ‘--(입)니다’로 너무 많이 사용한 것을 다소 어른 성경에서 사용된 끝말 어미를 참고하여 희석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린이에게는 처음에 다소 이국적으로 느낄 수 있겠으나, 성경이 전하고자 내

용 및 의미 전달에 있어서 거리감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김동미 (2018) 「성경 번역의 ‘수용성’ 연구:어린이와 어른 성경문체 비교 중심으로」, 『문학과 종교』23(2):1-24.
- 김성은 (2015) 「이수정의 성경 번역과 계몽 문체」, 『한국기독교와 역사』43(3): 69-88.
- 김순영 (2008) 「국내 학부 번역 교육과정에 대한 고찰」, 『통번역교육연구』 6(2):5-22.
- 김주한 (2012) 「신약 성경 편지 서두 번역에 대한 제안」, 『신약연구』11(4):855-888.
- 남원준 (2014) 「학생 중심 번역 교육을 위한 코퍼스 활용에 관한 고찰-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 『통번역교육연구』12(3)33-52.
- 김유나 (2008) 「통번역대학원의 교육 평가: 수업 중의 평가와 입시 평사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6(2):23-36.
- 박노철 (2005) 「한글 킹제임스(KJV) 성경 번역의 문제점: 언어/문법/문화 충돌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6(2):1-22
- 박윤철 (2010) 「통번역 교육방식과 교양 영어 교과과정」, 『통번역교육연구』8(1):51-70.
- 박철우 (2018) 「『표준새번역』성경번역의 과거와 미래」, 『한국구약학연구』24(3): 53-78.
- 안미현 (2010) 「외국어교육과 번역교육의 상관관계」, 『외국어로서의 독일어』27(4): 39-61.
- 이만열 (2015) 「이수정의 성경번역과 한국교회사의 의미」, 『한국기독교와 역사』43:5-21.
- 이미경 (2018) 「교수의 교과교육학 지식과 전문번역 수업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6(2):109-131.
- 유선영 (2017) 「영·한 통번역을 위한 성경 텍스트 클리셰(cliche)의 실증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17(10):54-64.
- 전성기 (2011) 「번역교육과 인문교육」, 『불어불문학연구』86(2): 439-424.
- 전양주 (2014) 「통번역 교수자 특성 분석 및 교육 니즈 연구 - 한일 전공 교수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일본어교육』69(3):49-62.
- 전현주 (2012) 「번역과 담론: 번역의 사회문화적 역할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3(1):241-266.
- 전현주 (2017) 「4차 산업혁명과 한국의 번역산업 현황 및 통번역 교육의 미래」, 『통번역교육연구』 15(3): 235-259.
- 조준형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번역학의 방향: 빅데이터로서의 코퍼스의 역할과 기능」, 『번역학연구』20(2):153-182.
- 최미경 (2015) 「외국어(B 언어) 방향 문학 번역 교육 - 이론과 실제」, 『프랑스학연구』72(4):297-324.